



남부 레바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6년 8월 1일

오늘로써 레바논에서의 전쟁이 20일을 넘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48시간 동안 공습을 중지하고 남부 레바논 출입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에스볼라의 모든 공습도 중단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실 때쯤은 상황이 이미 변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밭판’** :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보통 ‘밭판’ 라고 부르는 남부 레바논 국경 지대의 고원은 넓이가 70km 정도, 깊이가 6km 정도됩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에스볼라를 무찔러야만 하는 곳입니다. 공습 중단으로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 지상군을 증강시켰고, 점령을 향해 속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에스볼라는 단거리 공격 미사일 배치 지역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2. **더 큰 사랑**: 올메르트 총리는 지난 밤 연설 중에 소대 사령관 로이 클라인을 언급했습니다. 빈트 제바일의 전투 중 에스볼라에서 발사한 수류탄이 그의 소대 내에 떨어져, 부아들의 목숨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 로이는 수류탄 위로 뛰어들어 자신의 몸으로 폭발을 막아 병사들을 살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이들에 따르면, 로이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리고는 무전기에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보고하며 부대의 통솔권을 이임했습니다.

3. **유대 금식일**: 내일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는 전통적 유대 금식일인 티샤 베아브입니다. 저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레바논 국경까지 가서 기도하고 금식할 계획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믿는 유대인들이 이 금식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남부 레바논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안 그리스도인 모임에 보낸 편지입니다. (저의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비롯한 고통 받는 아랍 그리스도인들을 우연하기 원하신다면, 알려 주십시오. 저의가 우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이름은 보안상 밝히지 않음)

당신들의 고통을 보고 들은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애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겠지요. 얼마나 어려울지 다만 상상해볼 뿐입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저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상황을 전애 드리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에 대한 어떠한 증오도 품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들 모두가 무고히 사상된 민간인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랍 세계가 보이는 반응은 어쩌면 그렇게 상반될까 궁금합니다. 그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고난 당할 때마다 기뻐 뛰니까요.

우리는 레바논과 전쟁을 할 야욕이 전혀 없으며, 모두가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6년 전, 레바논 전역에서 모든 무기와 병력을 철수하는 건이 만장일치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랬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에스볼라의 공격이 전혀 동기가 없는 것이며, 이스라엘과의 국가간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기에 더욱이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6년의 기간 동안 이란이 시리아를 통해 이루어 온 에스볼라의 무장에 대해 우리는 국제 사회에 경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UN은 1559 결의안과 UNIFIL(레바논 임시 주둔 UN군)을 통해 에스볼라를 무장에게 시키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이 테러 조직의 병력 증강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UN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이 위선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UN이 자신들이 이렇게 엄청난 배신을 하지 않고 약속안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비행사들에게 어떤 지시가 주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피하고 전략적 목표물만 공격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볼라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민간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만을 고의로 노립니다. 두 번째로 남부 레바논에서 그들의 정책은 민간인 지역의 안가운데에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여, 민간인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들 것은, 군사 목표물을 양하여 발포했을 때 민간인 사상자가 생기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간인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무기를 발포하는 것은 대단한 전쟁 범죄이지요. 이스라엘 군은 예즈볼라가 미사일 발사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연속적으로 발포를 하고는, 바로 발사대를 근처의 민간 주택으로 들어 넣는 것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필요한 병력을 사용한다고 많은 이들이 비난했습니다. 전쟁 20일 동안 예즈볼라는 2,000발(200발이 아닙니다!)의 미사일을 이스라엘 북부 도시들을 직접 겨냥하여 쏘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가 이유 없이 이런 공격을 받았다면, 적이 국경을 넘어 주요 도시들에 미사일을 발포했다면, 그들의 대응은 이보다 100배 이상 강경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측 사상자가 생긴 것은, 대부분 우리 군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 무력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적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죽이려 안달이 난 1억의 이슬람 광신도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스, 이슬라믹 지아드 *Islamic Jihad*, 이란 정권, 알 카에다, 예즈볼라 알 것 없이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노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고(이것 역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각적으로 국제 사회는 유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극단적 이슬람 단체들이 단 한번이라도 이기는 경우가 생기면, 그 날로 우리 민족은 완전히 멸절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한 뒤로 6년의 시간 동안 13,000대가 넘는 미사일이 이란으로부터 예즈볼라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용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단지 우리의 생존권에 관한 것이지요.

당신들은 아마 이스라엘에 예수(예슈아)를 믿는, 거듭난 참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당신이 레바논의 희망이자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입을 주사 예슈아 구원의 복음을 동족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을 만나겠죠. 여기 있는 우리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레바논 사람들에게나 그것이 참 소망입니다.

또한 께익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당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테러와 지아드의 세력들이 아름다운 그 땅에서 떠나가도록, 강하고 의로운 정부가 일어나도록,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도록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협력과 상호존중의 아름다운 유산이 있습니다.

벌써 당신들의 답장이 기다려집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며, 관계를 쌓고 당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아 예슈아 안에서 사랑하고 소망하며...

아셰르 인트레이터 드림

번역: 고병연